500 년 그리고 계산은 진행중임

호세 마누엘 카펠라-프라츠 José Manuel Capella-Pratts

올해는 마틴 루터 Martin Luther 가 기독교와 서구 문명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동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개신교 개혁을 표방한 95 개 논조를 게시한 500 번째 기념일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짧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이 글을 시작합니다.[1]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고 비난하며, 이것은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누군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간단한 역사 A Brief History

신약 성서의 증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후 첫 세기 동안 교회의 시작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며, 살해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황제나 가이사를 포함한 신들의 예배와 충성을 요구하는 제국의 중심부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예배와 충성이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면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자로 간주되어 잔인한 처벌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박해 가운데 많은 신자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헌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콜로세움에 있는 야생 짐승들에 의해 태워지거나 찢겨 지기를 더 선호하였습니다.

3 세기가 지나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조상들이 견뎌낸 처음 3 세기로부터의 과감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안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의 사투를 폐지하고, 결혼 관련 법률을 개선하며, 심지어는 노예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때 그들을 박해한 정부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져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특정 면세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건축, 조각, 회화, 및 기타 예술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로운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

[1] 이 역사적인 기록에서 다음의 문헌을 의지함: Lefferts A. Loetscher,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4th ed.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83).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 받았다고 말했을 것이고 신자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낙원에 있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복음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었으며 결코 상상도 못할 성장에 도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또한 어떤 합병증을 가져 왔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고난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혜택을 얻고 이익을 얻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황제의 모범을 따라 기독교를 포용하기 위해 이교도를 떠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세속화하는 이교도의 관행과 생활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 세력은 수세기에 걸쳐 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부패를 보았을 때,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에서 물러나려고 결심한 경건한 여성과 남성이 있었고, 결국에는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중세에는 교회의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최고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를 따른 황제와 왕들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수도원 생활을 선택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성직자 생활의 명성과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등,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심지어 더 많은 세금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이 실행은 로마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설하기 위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신성한 사면 ("면죄부")을 마케팅 하고 판매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상황까지 퇴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면자임을 증명하고 사망 후 특정 처벌을 받지 않는 증빙 서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해지는 가운데, 경각심을 높이고 회개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 오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신자 중 한 명은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마틴은 죄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제거하고 구원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고백을 통해 오랜 시간을 보냈고, 몸을 심하게 처벌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구원 받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공부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1:17)는 성경의 진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삶의 메시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희망을 발견했을 때, 그 시대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에 도전하여 결국에는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개혁 운동 (혹은 개혁)에 나섰습니다.

주목 된 주요 요점이나 가르침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자는 자신의 언어로 성경에 접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성직자 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 구원은 매매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중재자가 필요 없으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 성경은 신자를 위한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것은 우리가 즐겁게 축하하는 이야기입니다. 16 세기와 17 세기의 이 운동에서 우리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기원을 발견합니다.[2]

개혁을 기억함 Remembering the Reformation

어린 시절부터 미국장로교회의 일원이었던 저는 종교개혁의 날에 대한 연례 행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노회 예식으로서 10 월 31 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모든 교회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큰 행사로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설교와 연설은 참여한 사람들의 용기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로, 큰 좌절과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개혁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축하 행사에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억할 만한 두 개의 구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 (개혁,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5 개 *solas: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 Solus Christus 및 Soli Deo Gloria*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또한 그 연설들이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서 과거를 강조점이 항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음을 기억합니다.

미국장로교회에서 먼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섬기면서, 개신교 개혁의 뿌리를 크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큰 자랑스러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적 유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저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종교 개혁을 일련의 사상으로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중요성을 버리고 과거를 다시 강조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연구하며, 고려해야 한다는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이유들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백만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갔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과거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히브리서 12:1)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과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선행한 사람들의 업적과 실패, 성공과 실수를 고려하여 배운 교훈과 유산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앞을 향하여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상들을 시련과 투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고,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

[2] 위의 내용은 간단한 요약일 뿐이며 훨씬 광범위한 역사의 몇 가지 폭 넓은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의 요구 사항인 쯔빙글리 Ulrich Zwingli 와 존 칼뱅 John Calvin 과 같은 모든 개혁자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기에 지면상 충분하지 않다.

종교 개혁에서 앞을 향하여 바라보며 Looking Forward from the Reformation

믿음의 길은 정적 static 이 아니라 동적 dynamic 입니다. 종교 개혁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계속하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동사는 "개선 된 형태 또는 조건을 갖추거나 혹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3] 종교 개혁은 변혁과 개선의 끊임없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입니다.

저는 종교 개혁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KRV). 개혁신앙 전통의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변화의 여정을 계속하고 신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길인 위대한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유산을 바탕으로, 하나의 초대 형식으로 표현된 몇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강조 Emphasis on the Study of Scripture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를 위한 믿음과 삶의 규칙입니다. 미국장로교회의 안수, 위임, 및 파송 예식에서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권위있는 증거이고,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입니까?"[4]

우리는 성경을 주변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문자 그대로 해석 될 수 있는 조리법 설명서로서 성경을 이해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1967 년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화해사업에 대한 증언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주어진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의 말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장소와 시대의 언어, 사상형식, 문학형태들의 지배를 받는다. 성경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문화적 정황 속에서 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변천하는 세계에서, 그리고 인간 문화의 각 형태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교회는 확신한다.[5]

---

[3]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s.v. "reform."

[4] *Book of Order*, W-4.4003b.

[5] *Book of Confessions*, 9.29.

지난 200 년 동안 성경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에 기독교계가 성경에 대하여 준-마법적인 이해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심각한 남용과 왜곡을 야기 할 수 있는 독성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며, 이는 "도서 목록 bibliolatry"이라고 부르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유인합니다. 개혁자들이 당일에 했던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 유산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과 관련 있는 간증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진지한 연구를 배양하고 증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을 강조하는 것에 강조 Emphasis on Affirming the Confessions

같은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고백적 성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조 스몰 Joe Small 은 처음부터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특히 캘빈과 츠빙글리의 유산을 따랐던 사람들)가 각자의 시간과 장소(*in tempore, in loco*)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6] 미국장로교회는 한가지 신앙고백을 고수하지 않고 기독교의 첫 세기로부터 종교 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간(*tempore*)과 장소(*loco*)에서 기독교 신앙고백을 나타내는 12 개의 신앙고백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의 DNA 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브리서 13:8)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변화하며,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은 진화합니다. 세상의 다른 쪽에 있는 농경 문화의 은유는 반드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의 도시 문화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문제와 관심사는 반드시 21 세기의 아메리카 대륙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과 상황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어진 상속의 가치를 모호하지 않고,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증거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도달 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미국장로교회의 덕목 중 하나는 새로운 신앙 고백 문서를 채택해도 이전 세기의 신앙 고백을 취소하거나 없애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세대를 풍성하게 한다는 증언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강조 Emphasis on Education

저는 계속해서 교육을 장려 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세 시대의 단점 중 하나는 교육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직자와 부유한 계급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개신교 개혁자들은 고도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교육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보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중을 위한 교육과 지식을 증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개혁자들이 라틴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예배와 성경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6] Joseph D. Small, *To Be Reformed: Living the Tradition* (Louisville: Witherspoon Press, 2010), 4.

같은 정신으로 미국장로교회의 선교 사업은 역사적으로 어디서나 교육의 진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저는 저의 마음에 아주 가까운 두 가지 예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912 년 존 윌 해리스 John Will Harris 목사는 푸에르토 리코의 산 헤르만 San Germán 에있는 초중 고등 교육 기관인 Polytechnic Institute 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육 기관은 오늘날 푸에르토 리코의 Inter-American University 로 성장하여 대학 학위를 수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 선교사인 로버트 워튼 Robert L. Wharton 목사는 쿠바의 카르데나스 Cárdenas 에서 라 프로그레시바 장로교 학교 La Progresiva Presbyterian school 를 시작했으며 쿠바의 가장 중요한 초 중등 학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La Progresiva 는 쿠바 혁명의 결과로 1961 년에 문을 닫았으며 60 년 동안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는 La Progresiva 장로교 학교를 통해 열매를 맺고 삶을 감동시키는 교육적인 사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7]

"교회의 큰 목적"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교제"를 포함합니다.[8] 반-지식주의를 조직적으로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의 중심에서,[9] 교회는 드러난 모든 수단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 당시, 전임자들은 새로 발명된 인쇄기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500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개혁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원,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즉 글로벌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의 강조 Emphasis on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무엇보다도 만인 제사장설의 보편성을 계속 확인합시다. 중세 기독교는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성직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직자는 교육받은 신자였습니다. 성직자는 죄의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 생활에 대한 종교 개혁의 반응은 만인 제사장 교리였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직접 갑니다. 신성한 관심이나 하나님의 용서를 관리하는 "공식적" 제사장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자들은 세례를 신자 수습을 위한 의식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장로교회는 교회 교인들의 "사역"이 주는 역할을 가리키며 사역이 포함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 언행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 개체교회의 공동생활과 예배에 참여하는 일
- 기도와 상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일

---

[7] www.laprogresivaschool.org

[8] *Book of Order*, F-1.0304.

[9]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보라: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wired-success/201407/anti-intellectualism-and-the-dumbing-down-america

- 성경과 기독교 신앙과 삶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일
-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회의 목회사역을 지원하는 일
-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일
- 타인의 섬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활동에 응답하는 일
-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삶의 관계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일
- 평화, 정의, 자유, 인간 성취를 위해 세상에서 사역하는 일
- 교회의 치리 하는 책임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자신의 참여를 증신하고 보다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는 일 등이다.[10]

불행하게도 종교개혁 500 년 후, 우리는 여러 곳에서의 회중의 삶이 성직자 중심의 삶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기도하기조차 시도하지 않으며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선호하는 회중들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바울 시대의 직분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KRV)에 두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사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의 신앙으로 특징 지어져야 할 때, 소비의 신앙(종교성)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중은 배우로 부름을 받았지만 회중은 관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은 우리가 소비 의식에서 행동과 헌신의 정신으로 옮겨 갈 것을 촉구합니다.[11] 개혁 교회의 유산에서 우리 교회는 만인 제사장설 혹은 "성도"의 사역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성경적 및 신학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대신에 교회가 사역을 수행 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봉사하고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500 년 전에 시작되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보존될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개혁은 끊임없는 변화의 길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우리가 하는 개혁 약속을 기꺼이 감수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10] *Book of Order*, G-1.0304.
[11] 주제에 대한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 및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Anthony B. Robinson, *Transforming Congregational Cultur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500 년 그리고 계산은 진행중임

대화를 시작하며: 토론 질문들

미셸 바텔 Michelle Bartel

1. 저자는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 들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축하하는 일은 우리가 여행을 계속하도록 격려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개혁을 장로교인으로 계속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회중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당신 자신의 신앙 여행에서는 무엇입니까?
2. 카펠라-프라츠는 성경을 "마법적"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대신에 그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특별한 해석 지침을 권고합니다. 당신의 예배 공동체의 성경공부를 위하여 당신이 공헌하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더 깊은 학생이 되기 위해 세우고 싶은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3.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적 성격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그리고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신앙을 나누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귀하의 교회에서 "교회의 고백적 본질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 귀하의 교회에서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 공동체는 가르침에 대한 강조가 커짐에 따라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개혁의 특징이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지역 사회가 여행을 계속하도록 장려하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5. 카펠라-프라츠 Capella-Pratts 는 예배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역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신학적 대화를 종결 짓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교회가 목회자 및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목사로 자신들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종교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